

#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 역할과 문학교육적 함의

김금내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 이 논문은 제78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2.4.15.)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 II. 집단 지성의 의미와 형성 조건
- III. 독서모임 커뮤니티에서 집단 지성 형성을 위한 독자 역할의 수행 양상
- IV.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 역할 실현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 V. 맺음말

## I. 머리말

문학교육에서 신비평과 구조주의 비평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독자 반응 비평과 수용미학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의 존재가 조명되었다.<sup>1)</sup> 문학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문학 텍스트의 미적 자질은 문학 텍스트 범주와 독자 범주 간 결합 작용으로 인해 획득되는 성질로 여겨졌고, 독자는 문학 텍스트와 소통하는 주체로 부상하였다(이향근, 2012: 49-50). 문학 작품을 위해 유령처럼 존재하던 독자는 “개별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잠재적인 개별적 독자(양정실, 2012: 102)”라는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독자가 소통하는 주체의 자리에 위치하면서 문학교육에서는 독자 반응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마주하게 된다. 그 대안으로 ‘내포 독자’를 교육의 장에 수용하여 이상적 독자로 설정한

---

1) 제3차 교육과정과 제4차 교육과정에서 신비평 이론을 토대로 한 내용 요소가 중심이 되었다면,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문학’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해설에 독일의 아우스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용미학과 미국 중심의 독자 반응 이론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수용자라는 용어가 사용된다(오연경, 2016: 99).

다(박주형·진가연, 2020: 294). 내포 독자는 텍스트 안에 포함된 독자이자 텍스트에 기입된 독자이다(Iser, 1984/1993: 77-78).<sup>2)</sup> 실제 독자는 작가나 텍스트 의도를 무시할 수도 있고 텍스트의 의도와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그렇기에 문학교육에서는 실제 독자와 내포 독자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향을 견지하였다.

내포 독자를 이상적 독자로 간주하는 문학교육의 방향에서 학습독자는 문학 텍스트와 분리된 일반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환경, 지식이나 경험, 가치관 등을 문학 텍스트 읽기 과정에 구조화해야 하는 인격체로 호명된다. 학습독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그 자체로 가치 있기보다는 문학 텍스트를 구조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때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는 독자의 반응을 강조하면서도 문학 텍스트의 구속력 아래 독자 맥락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져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독자가 모여 있는 교실공동체의 사회·문화적 복잡성을 문학교육에서 포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미국의 독자 반응 이론과 수용미학은 독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공동체의 영향을 소홀하게 다루게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강민규, 2020: 60).

더욱이 오늘날 온라인 공간에서 지식이나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이 강화되는 자유로운 소통 조건에 따라 독자가 문학 텍스트를 소통하는 환경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문학 텍스트 읽기는 개인 독자와 문학 텍스트의 단선적인 관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가나 불특정 다수의 독자와 만남을 추동해 나가며 다층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대화적 매체로서 문학 텍스트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학적 소통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우려를 앞에 놓고 문학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 문학은 본질적으

---

2) 수용미학에서 아우스는 독자가 문학 텍스트를 이해할 때 문학 텍스트의 내재적 구성 원리와 문학성의 전제 조건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저는 문학 텍스트의 '불확정성'을 인정하고 문학 텍스트 의미는 "전적으로 독서 과정에 의해 생겨난다"고 주장하지만, 독서 중에 생겨난 의미는 텍스트 구조에 있음을 전제한다(김천혜, 1998: 244-247).

로 문화공동체의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윤영천·김진경·홍정선·정과리·김명인, 2009: 113). 이에 문학교육에서는 문화공동체 구성원이자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집단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독자 역할을 실현하게 되는 계기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이론을 토대로 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독자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집단 지성은 지식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과 공유와 연결이라는 방법론적 시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의 산물로서 문학 텍스트를 읽는 행위를 사회적 소통 국면으로 확장하는 데 유효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를 토대로 독서모임 커뮤니티인 ‘트레바리’에 참여한 성인 독자들의 문학적 소통 양상을 분석하여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 역할을 논하고 그 문학교육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 II. 집단 지성의 의미와 형성 조건

통상적으로 지성은 ‘이해하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지니며 인간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위한 정신적인 능력을 지칭하고 있다(김윤재, 2015: 307). 인간은 지성을 발휘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에 도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고 산출하게 된다. 즉, 지성은 두

---

3) 독자 역할을 다양화하기 위해 문학교육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보인다. 저자 입장에서서 문학 텍스트와 관련된 질문을 생성하거나(이향근, 2013) 피서술자나 내포 작가 위치에서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한 읽기를 시도하고(정진석, 2014), 작가와 관계를 맺으며 창작에 개입하는 능동적 협력자로서의 독자 역할에 대한 교육적 의의를 밝힌 논의(박주형·진가연, 2022)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독자 역할을 변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개인 독자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주가 되어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게 되는 ‘집단으로서의 독자’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뇌를 가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속성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구성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최근 생물학 분야에서 뇌의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드러나면서 지식이나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은 정신적 작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상은 ‘거울 뉴런(mirror neurons)’이다. 거울 뉴런은 단지 보는 것 혹은 듣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동작을 머릿속에서 재현하고 의도를 추측해내는 두뇌 회로를 일컫는다(김경년, 2021: 104).<sup>4)</sup>

거울 뉴런은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모방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가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인간 지성이 이성적 패러다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인간의 지성은 개인의 정신적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타인과 교감하면서 협력적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구성하는 능력을 포괄한다. 즉 “지성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회 지성이자 감정 지성(조화순·민병원·박희준·최항섭, 2011: 45)”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인터넷이 등장하였고 지식이나 정보가 생산되고 작동하는 방식이 변화되면서 집단 지성 담론이 본격화되었다. 웹(web)을 매개로 정보의 가공 및 유통, 상호작용을 통한 인식의 발달과 배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집단 지성의 산출물로 볼 수 있다. 피에르 레비(Levy, 1997/2002: 38)는 집단 지성을 “어디에나 분포하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며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으로 정의한다. 집단 지성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

---

4) 이탈리아의 파르마 대학에서 실험 대상이었던 원숭이의 뇌에서 다른 원숭이의 행동을 볼 때 직접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뇌의 전기적 자극이 활성화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한 개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대신 타 개체의 행동을 보기만 하여도 운동과 관련되는 부위에서 뉴런 발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지각(perception)과 행위(action)가 뇌 안에서 뚜렷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손정우·김혜리, 2013: 110).

보면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어디에나 분포한다”라는 집단 지성의 요소는 ‘대중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인식론적 배경이 전제되어 있다. ‘대중의 지혜’는 전문가 군에 들어가지 못한 평범한 이들도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지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개별 능력이 합해질 때 전체에서 나오는 능력은 개별 능력의 산술적 합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는다는 인식이다(양미경, 2010: 9-10). 대표적으로 네이버(Naver)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된 ‘지식iN’이 있다. ‘지식iN’에서는 질문-답변-채택의 구조를 거쳐 지식 덩어리가 완성된다(한창진, 2009: 1365). 누군가가 직접 올린 질문에 다른 사람들이 답변하고,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은 등록일과 무관하게 가장 위쪽에 배치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면서 공유된다. 이때 답변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삶의 문제들이 복잡해지면서 소수 전문가가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개인들이 체험된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집단 지성은 ‘대중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를 허물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이 주요한 동인이 되어 형성된다.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며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요소는 현대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이 줄어드는 소통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집단 지성을 지식 생산 주체의 대중화나 협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론들과 다르게 피에르 레비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까지 언급한다(김지연·강진숙, 2013: 39). 사이버 공간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온라인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기능케 하는 창조 및 지식으로의 향해와 사회적 관계의 독창적 양식의 실현이 가능해진다(Levy, 1997/2002: 143).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구축되는 네트

워크(network)이다. 네트워크는 모든 위계적인 구조에 대한 경계의 시선을 보내면서 복수의 중심(multipolaire), 접점들(noeuds), 흐름들(flux), 순환들(circulations), 상호교차들(interconnexions)의 속성을 가진다(최항섭, 2009: 297-298). 네트워크에 진입하게 된 대상이나 주체는 분열된 복수적인 존재이며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MZ 세대<sup>5)</sup>가 가지는 특성은 그 범위에 포함된 개개인이 갖는 전반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어떤 세대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상이한 가치가 부여되며 지식이나 정보가 실시간으로 조정된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구축되는 네트워크는 수평적 관계를 확장하면서 개체의 변화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역량의 실제적 동원”을 가능케 하는 집단 지성은 현실에서 관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오던 가치를 전복시키고 저항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개개인들의 지식이나 정보는 단순히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 지성은 방대한 지식이나 정보 자체가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숙의의 과정을 거쳐 현실에서 변화를 이루어 내는지가 중요하다.

위키피디아(Wikipedia)의 경우 네이버의 지식iN과 다르게 공동평가의 원리가 적용된다. 지식iN에서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답변자만이 수정할 수 있으나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쓰기, 첨삭, 갱신과 편집에 참여하고 토론을 통한 수정까지 가능한 공동창조형을 지향한다(황주성·최서영, 2010: 264). 공동창조형 방식의 운영은 개개인이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을 공유하고 경합하도록 하면서 이전과 다른 지식의 장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아미(ARMY)는 방탄소년단의 곡이나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공유

---

5)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하면서도 미디어/자본/인종/언어적 주변부에서 권력적 소수자의 위치에 존재한 방탄소년단의 위치를 자각하고 그들의 성공을 위해 풀뿌리 문화 운동(grassroots cultural movement)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의 집단적인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한다(이지영, 2021: 177-178).<sup>6)</sup>

위의 사례를 통해 “역량의 실제적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 지성은 주체들 간의 협력이나 교환을 기반으로 소통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면서 현실에서 탈중심성을 가진 문화 자원을 복원해 내는 시너지(synergy)를 창출함을 알 수 있다. 집단 지성은 단순한 인지적 대상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취급하지 않고 사회적 유대 관계에 따른 공유와 협업을 통해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으로까지 확장된다.

결론적으로, 집단 지성은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 개인이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를 연결하며 사회적 문제에 천착하고 실천하는 효과까지를 포함한다. 즉 집단 지성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우리는 함께 집단 지성을 이룬다, 고로 우리는 뛰어난 공동체로서 존재한다”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휴머니즘을 구현하는 의미를 갖는다(Levy, 1997/2002: 43).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집단 지성이 형성되는 조건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집단의 가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집단’은 소수의 전문가만을 지칭하지 않고 더 넓은 외연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개인 주체가 다수와 연결되는 환경에서 참여와 탈퇴에 있어 자유가 보장되는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

6) 2019년 방탄소년단 앨범인 〈Map of the Soul: Persona〉가 큰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미 어워드의 어느 부문에도 후보지명이 되지 않자 아이들은 트위터에서 ‘방탄소년단의 가치는 미국 음악상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This Is BTS라는 해쉬태그를 공유하며 아이튠즈 차트를 점령하였다(이지영, 2021: 177-178). 그래미 어워드에 대한 불만을 차트 역주행으로 표현한 사건은 방탄소년단에 지지를 보여주는 행위이자 기존의 음악 시상식 운영에 저항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개개인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인정하며 상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화적 매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sup>7)</sup> 지식이나 정보를 보존하고 분배하는 소통이 담론적이라면 분배된 정보를 창조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보로 합성해 내는 소통이 대화적이다. 레비의 이상적인 전망<sup>8)</sup>과는 달리 온라인 공간은 질이 저하된 정보, 잘못된 정보, 의도적으로 거짓을 담고 있는 정보 등이 유통되고 있다. 지식이나 정보의 속고가 없다면, 다수에게 알려진 정보가 사실이자 진실이 되어 집단 지성은 전체주의적 사고 혹은 집단사고로 변질된다. 따라서 토의나 토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적 매체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학 독서에서도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 역할은 뉴미디어 인터넷페이스에 기반을 두는 문학적 소통 현상이 증가하면서 더욱 중요해진다. 매체의 발달로 인해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편재한 독자 간의 즉각적이고 실시간적인 소통은 문학 텍스트를 단순히 공유하고 전달하는 유통의 의미를 넘어서는 파급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독자가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면서 어떤 읽기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문학교육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독서모임 커뮤니티인 ‘트레바리’에서 성인 독자의 문학적 소통 현상을 분석하여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7)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는 ‘담론형 매체(diskursive Medien)’와 ‘대화형 매체(dialogische Medien)’를 구분하고 있으며 매체를 활용하는 참여자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김겸섭, 2011: 184-185). 즉, 참여자가 매체에서 구현하는 소통 내용이 중요해지며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8) 레비의 관점에서 인간은 호혜적 관계성을 이루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지식과 정보의 유통 속도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최초의 정보가 잘못되었다더라도, 수정 가능한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의 온라인 공간의 실태를 고려했을 때 수정 가능한 체제는 자발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 III. 독서모임 커뮤니티에서 집단 지성 형성을 위한 독자 역할의 수행 양상

####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독서모임 커뮤니티 중에서 집단 지성 형성 조건 두 가지를 토대로 ‘트레바리’<sup>9)</sup>를 의도적 표집 방법을 이용해 선정하였다. ‘트레바리’는 유료로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되며 “책을 읽고, 쓰고, 대화하고, 친해져요!”라는 구호를 내세운다(트레바리, 2015). 이를 통해, 개인적인 독자로서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다른 독자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구성되는 지식이나 정보가 중시됨을 알 수 있다.

‘트레바리’에서는 개인 독자로 책을 읽으면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사회 각계의 명사들과 만나 토론할 수 있도록 ‘클럽장이 운영하는 클럽’과 파트너라고 불리는 독자가 주도적으로 독서모임을 기획하는 ‘함께 만드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대면 모임을 강남과 안국에 ‘아지트’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진행한다. 이 외에도 독자 간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번개추진위원회’, 다른 독서모임에 ‘놀러가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트레바리’가 집단 지성 형성 조건인 집단의 가변성, 대화적 매체의 활성화 여부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양한 맥락과 배경을 가진 독자들이 트레바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4개월을 주기로 모임이 변화하여 집단의 가변성을 충족한다. 또한, ‘멤버’로 참여하는 독자는 가입하고 싶은 독서 ‘클럽’을 선택하고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한 달에

---

9) ‘트레바리’는 본래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을 일컫는 순우리말이다.

한 번 대면으로 만나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대화를 한다. 대면으로 만나기 전까지 SNS와 독후감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초대된다. 이러한 소통 장치들은 대화적 매체를 활성화하는 조건에 충족된다.

다음으로, ‘클럽장이 운영하는 클럽’은 유명한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독서 모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연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독자 간의 수평적 관계가 기반이 되는 ‘함께 만드는 클럽’을 초점화하였다. 이중 문학 독자를 초점화하기 위해 문학 텍스트를 읽는 모임으로 한정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에 2023년 3월~4월 트레바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함께 만드는 클럽’ 중에서 문학 텍스트 읽기가 주가 되거나 혹은 문학 텍스트 읽기가 포함된 모임 15개<sup>10)</sup>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문학 텍스트의 읽기와 관련된 소통의 특수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문학 독서 클럽의 참여자에게 면담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면담 대상자 표본은 적어도 1회기(4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들을 1차 표집한 후, 이들에게 또 다른 유형험자들을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2차 표집을 진행하였다. 2차 표집 과정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특성이 편향되지 않도록 직업, 트레바리의 활동 기간, 맡은 역할, 참여한 클럽 수, 현재 활동 유무, 문학적 소통을 위해 활용하는 매체 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 대상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

10) 표집한 클럽은 문학 텍스트만 읽는 ‘문-고전, 문-미미, 문-두루, 문-레드, 문-얹고 깊은 책’과 영화와 책을 함께 읽는 ‘북씨-유니버스, 북씨-공상, 북씨-수박, 북씨-봄밤, 북씨-다이버’와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 ‘무경계-살림’, ‘무경계-설렘’과 책을 읽고 활동을 병행하는 ‘체험독서-단단’, ‘체험독서-광합성’과, 책을 읽고-쓰기에 방점을 둔 ‘숨에 세이-두근’으로 총 15개를 선정하였다.

〈표 1〉 면담 대상자 정보

번호	이름	직업	활동한 문학클럽	활동 기간	맡은 역할	문학적 소통을 위한 활용 매체
R1	박**	초등교사	8개	2017~현재	파트너	인스타그램
R2	송**	광고회사	5개	2018~현재	파트너	인스타그램
R3	이**	IT 회사	2개	2018	멤버	기록
R4	신**	유치원 교사	2개	2019	멤버	블로그
R5	장**	디자이너	1개	2019~2020	멤버	블로그, 노션
R6	신**	마케팅	1개	2019~현재	멤버	카카오톡
R7	전**	앱 개발자	3개	2021~현재	멤버	인스타그램
R8	김**	자동차 연구원	1개	2023~현재	멤버	카카오톡

면담 대상자는 ‘함께 만드는 클럽’에서 활동하는 독자의 층위를 고려하였다. ‘파트너’는 독서모임의 장으로 활동하는 독자를 뜻하며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일반 독자는 ‘멤버’라고 부른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트레바리에서 다른 독자와 문학 텍스트를 함께 읽는 경험이 이후에 문학 텍스트를 읽고 소통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문학적 소통을 위해 활용하는 매체를 고려하였다.

1차로 제공한 설문지에서는 트레바리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 문학 텍스트를 읽는 모임을 선택한 이유, 문학 독서모임에서 소통한 내용, 활동 소감, 활동 후 문학 독서 방식의 변화 등을 질문하였고, 서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생성하여 면담을 수행하고 그들이 활동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트레바리 자체의 홈페이지 자료, 문학 텍스트를 읽는 독서모임의 홈페이지 자료, 면담 참여자들에게 시행한 질문지와 그들의 활동 자료, 면담 내용을 토대로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 역할을 분석하였다.<sup>11)</sup>

11) 질문지는 W - 질문번호, 면담 자료는 I로 코드화하였다.



개인 독자로서 형성한 감상이나 해석을 독후감의 형태로 다른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에 올리면 다른 독자들은 ‘좋아요’나 ‘댓글’과 관련된 기능을 활용하여 서로의 독후감을 읽고 소통할 수 있다.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소통한 내용을 살펴보면 ‘맥베스’라는 인물을 ‘야심과 양심’에서 갈등하는 인물로 이해한 독자는 다른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을 느낀 인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맥베스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문학 텍스트에 다시 머무르게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 독후감을 다른 독자와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것은 문학 텍스트 감상이 종결되지 않고, 새로운 국면으로 감상을 재편할 수 있게 한다.

연구자: 여러 사람이 올린 독후감은 문학 작품을 읽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R4: 온라인에 올라온 독후감은 곱씹어 볼 수 있어요. ㉠독후감 자체에 평소에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직업적인 특성?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점으로 다시 읽기도 하죠.

연구자: 문학을 읽으면서 하는 대화는 다른 책을 읽고 하는 대화와 다른가요?

R4: 네, 확실히 달라요. 더 답해진다고 해야 하나? ㉡문학책으로 서로 대화하면 어디서 하지 못한 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다른 책들은 특정 소재나 경험이 주가 되는데 문학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트레바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학창 시절에 만난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R4-I - 부분㉠〉

㉠의 경우를 살펴보면, R4는 독후감을 곱씹어 보면서 문학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보다 누가 해석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의미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문학 텍스트를 읽고 공유하는 독자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학이 인간의 삶을 형상화한 텍스트라는 본질은 문학

텍스트에 드러난 의미를 형성하면서 파악될 수도 있지만, 독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의 차이를 생생하게 체험하면서도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에서는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형성되는 대화의 특수성이 드러난다.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대화 소재는 어디서도 하지 못했던 솔직한 이야기이자 삶의 본질적 질문과도 연관된다. “학창 시절에 만난 친구” 같은 느낌은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형성되는 관계가 특정한 이익이나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는 사회적 관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며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이 배제되고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맺어지는 느슨한 연대감은 오히려 내면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SNS에 개설된 소통 공간은 플랫폼의 특성상 사적인 이야기나 친교 관계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트레바리의 문학 독서모임에서 SNS의 소통 내용은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친교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독자는 실시간으로 문학 텍스트 읽기 전·중·후를 다른 독자와 공유하면서 함께 읽고 있는 상황을 자각하고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R5: 카카오톡으로 책과 관련된 내용이나 책을 읽어야 하고 읽고 있다는 것도 말해요. ㉠서로 문학을 읽도록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만나면 좀 가까워진 느낌이 있죠. 읽지 못했던 책들도 도전해 볼 마음도 생겨요. 함께 읽으면 완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구자: 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떤 점이 다른가요?

R5: 나중에는 쉬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읽어야 하는 책에 대해 공감했던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하고, 직접 만났을 때는 다른 생각도 이야기했어요. 나중에는 공간에 상관없이 쉬여지면서 서로 다른 부분을 발견하는 재미가 커졌던 것 같아요.

〈R5-I〉



㉗에서 알 수 있듯이, R5는 온라인 공간에서 문학 텍스트를 읽는 과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읽기를 응원하며 함께 문학 텍스트를 읽는 독자로서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시·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학적 소통은 다른 독자와 관계를 공고히 하며 개인적으로는 읽기 어려워했던 책까지 도전해 보는 의지를 불러오게 된다.

㉘을 살펴보면, 초기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서로의 유사한 반응에 주목하였으나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문학적 대화와 연계되면서 차이가 나는 반응까지 활성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학적 소통이 역동적으로 개진되면서, R5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의미의 차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개개인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해지는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조정하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

연구자: 트레바리의 문학 독서모임에 참여하면서 바뀐 점이 있나요?

R4: 읽기만 하지 않고 쓰게 되는 것? 독후감 쓸 때 문득 현타가 오는 거예요. ㉗ 내가 읽은 것은 수 천자가 훨씬 넘는데 400자도 못 쓰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쓰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읽고 한 줄이라도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이 휴대폰 어플로 접근도 쉽고 책 사진을 같이 올릴 수 있는 게 좋아서요. 적게는 한 줄부터 많게는 한쪽 분량 정도로. ㉘ 개인적으로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싶을 때는 블로그도 이용해요.

〈R4-I - 부분②〉

R4는 평소 온라인 콘텐츠를 빈번하게 활용하는 편이 아니었으나 트레바리에서 독후감을 쓴 경험으로 인해 개인의 독서 습관이 변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문학 텍스트를 읽고 쓰는 연속적 행위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게 된다.(㉗)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적 측면이 무엇인지에 따라 공개성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문학 텍스트를 읽고 쓰는 통합적 감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다른 플랫폼을 선택하고 있다.(㉘)

이처럼, 독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대면성을 전제로 문학적 대화에 참여하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실시간으로 읽기 과정과 서로의 해석이나 감상을 공유하면서 두 공간을 횡단하게 된다.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은 각각 가지고 있는 한계를 상호보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는 문학적 소통을 지속하게 되면서 집단적 독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더 나아가 독자는 생활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문학 텍스트를 읽고 쓰는 감상까지 실천하며 문학의 생활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 2)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문학적 소통의 장기화

트레바리 독서모임에서 ‘파트너’는 독서모임을 기획하는 독자이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독서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트레바리 홈페이지에 홍보한다. 홍보 내용은 모임에서 읽을 책 목록, 자기소개, 모임이 추구하는 가치, 이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고로운 노력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 역할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질문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독서모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추천이나 해석을 들으며 독서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전보다 다양한 시대, 공간, 장르의 문학을 읽을 수 있게 되는 즐거움을 갖게 된 것이 모임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매번 모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혼자 읽을 때는 공감하지 못했던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읽으면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해석이 가득한 독서모임을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충만해지고, 인간 관계의 새로움도 발견하게 됩니다.

〈R1-W-Q2〉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가치가 있게 되고 더 넓은 사유로 이야기가 뻗어가게 됩니다. 다른 독자들의 가치관이나 다른 관점들이 저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답이 없는 문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문학은 어려운 것이 아닌 살아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모임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R2-W-Q2〉

개인적 독자로서 문학 텍스트를 읽고자 하는 욕구가 독자 간 대화로 실현되면서 R1은 문학적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R2는 문학 텍스트를 “살아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독자마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가치관들이 경합하게 되면서 빚어내는 해석이나 감상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데 문학 텍스트 읽기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파트너 역할로 트레바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산재된 독자를 집결하여 문학 텍스트를 함께 읽는 즐거움을 누리하고자 하는 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트너 역할을 맡은 독자들은 모임의 정체성을 고민한다. ‘문-’으로 시작되는 모임은 트레바리 차원에서 문학 읽기 모임이라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공통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문학 텍스트를 읽을 것인지에 따라 ‘문-고전’, ‘문-얕고 깊은 책’ 등으로 모임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외에도 문학적 소통의 장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에 대해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독서모임을 처음 홍보할 때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하고 문학을 읽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도 고민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고, 저도 아직 시행착오 중입니다. 실은 저는 현대에 동시대 작가의 문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책을 선정할 때는 고전과 현대 문학, 영미 문학, 아시아 문학, 유럽 문학, 라틴 아메리카 문학 등 작품의 시대와 공간의 다양성을 고려하죠. 많은 분들이 문학을 편식한다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적인 문학이나 너무 가볍지 않은 현대의 문학 작품을 골고루 선정하려고 하는 편 같아요.

〈R2-I〉

위의 면담에서 R2는 다수의 독자가 문학을 편식하지 않기 위해 독서 모임에 참여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독자들이 특정 문학 ‘클럽’을 선택할 때, 평소에 읽고 싶은 문학 텍스트가 있는지가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평소 잘 읽지 않았던 장르에 도전하거나, 문학 텍스트를 읽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활동 등도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파트너 역할의 독자는 한 편의 문학 텍스트를 선택하는 과정부터 다수의 독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문학 텍스트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생각한다.<sup>12)</sup>

개인적으로 읽으면 잘 질문하지 않아요. 수용적으로 공감적으로 읽기를 하는 편입니다. 책의 인물 중에 나와 비슷한 인물을 찾거나 그의 행동에 공감하는 식의 읽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함께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질문거리를 의도적으로라도 더 만들어서 발제문을 만드는 편입니다.

〈R1-I〉

R1의 경우, 개인 독자로서 문학 텍스트와 관계를 맺을 때는 공감과 수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집단적 독자로 위치할 때는 그렇지 않은 반응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는 문학적 대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질문’을 생성하기 위해 문학 텍스트에 대한 불확정적인 지점에 주목하게 되면서 반응이 다양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독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면서 문학 텍스트를 역동적으로 읽게 된

12) 문학 텍스트를 읽으면서 다른 독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구안하는 사례는 ‘멤버’로 참여하는 독자 R3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회 모임 이후에 다들 부쩍 가까워져서 카카오톡 소통이 활발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아이디어도 내고 그랬어요. 기억나는 건, 다음 독서모임에서 읽을 책이 독일이 배경이 되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파트너 분이 독일 음식점에서 친목 모임을 추진했어요. 주인도 독일인인 곳에서요.”

것이다. R1이 활동하는 문학 독서 클럽에서 최은영의 <밝은 밤>을 읽고 만든 발제문 중 이러한 성격을 보여준 질문은 <표 2>와 같다.

<표 2> <밝은 밤> 발제문 중 일부<sup>13)</sup>

- 공감되는 인물이나 공감되지 않는 인물이 있었나요?
- '나'와 엄마, 엄마와 할머니처럼, 소중한 사람과 어떤 갈등을 계기로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 주인공의 엄마, 할머니, 증조할머니는 모두 체념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주인공은 순응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점점 직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 '나'와 엄마, 엄마와 할머니, 할머니와 증조할머니의 관계는 모두 살갑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자, 모녀 관계는 어떤가요?
- 소설에 등장하는 기혼 여성들은 모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 작가가 100여년의 시간에 걸쳐 그려낸 여성의 삶과 현재 여성의 삶은 얼마나 다르고 같을까요?

위의 질문들은 문학 텍스트를 읽고 반감이 형성되는 부분, 가족 관계나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대처법, 삶에 대한 가치관, 배우자관 등을 물어보며 문학 텍스트를 자기화하면서 읽게 한다. 더 나아가 현재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질문으로 공유하여 사회적 독서를 목적으로 한 읽기로 문학적 대화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sup>14)</sup> 문학 텍스트를 읽고 집단 지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해석이나 감상 자체를 공유하는 소통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혼자서는 사유하지 못했던 범주까지 관점을 확대하여 새로운 문제의식을 출현시켜 소통의 국면을 확장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 파트너 역할의 독자는 ‘질문’을 통해 개개인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 
- 13) ‘트레바리’에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문학적 대화를 하기 며칠 전에 책을 읽고 생성할 수 있는 질문 목록인 ‘발제문’을 만들어서 SNS에 공유한다. 발제문은 파트너 역할을 맡은 독자가 하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멤버로 참여하는 독자가 지원하여 만들기도 한다.
  - 14) 독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거나 교양을 넓히기 위해 독서하는 것은 개인적 독서이고, 자기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독서하는 것은 사회적 독서이다(천경록, 2014: 9).

다양성을 끌어내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도출한다. 파트너 역할의 독자가 질문을 생성하며 소통하려는 행위는 다른 독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첫 모임에서 파트너 분이 발제한 후, 저도 발제문을 만들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물이나 사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약의 상황을 덧붙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책 한 권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더라구요. 문학 한 권이 내 삶에서 흘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게 돼요. 물론, 처음하니까 어색해서 파트너분이 질문하면서 모임을 이끌어 가는 것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R6-I〉

R6은 발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삶의 다양한 국면과 연계한 질문을 생성한다. 질문을 통해 문학 텍스트에 내재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게 되고, 개인적 독서와 사회적 독서를 목적으로 한 읽기가 교차하면서 문학 텍스트가 삶 속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 이처럼, 문학적 대화에서 질문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나 감상을 축적하거나 종합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관련성을 통해 문제의식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의미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파트너’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와 문학 텍스트를 읽는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적극적인 독자이다. 개별 독자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문학 텍스트의 가치를 조정하는 주요한 마중물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문학적 소통의 장을 기획하는 주도성을 보인다. 파트너 독자가 소통의 장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은 개인적 독서와 사회적 독서가 연계되면서 문학 텍스트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심화하게 된다. 이처럼, 문학적 소통의 장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독자 역할은 문학 텍스트의 가치를 조정하며 독자와 독자 간에 수평적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집단 지성을 형성할 수 있는 연결

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 3) 연대를 통한 문학적 권력에 대한 저항 실천

문학은 인쇄 문화의 토대 위에서 ‘출판’이라는 유통 방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대량 보급될 수 있었다. 이후 독자가 문학 텍스트를 읽게 되는 경로는 작가, 출판사, 비평가를 비롯한 신뢰할 만한 독자 등 사회적 권위를 갖는 주체들의 담론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권장도서 목록은 독자가 아닌 심의를 하는 상위계층 또는 출판사가 주체가 되어 선정된다는 점에서 독자를 수동적 객체로 간주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이미은·김겸섭, 2022: 167).

‘트레바리’에서도 파트너가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유명한 작가가 창작했다는 이유, 권위 있는 기관이 추천했다는 내용이 다수 나타난다. 그러나 문학 텍스트의 질은 무형의 것으로서 그 가치는 작가 자신이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실감과 그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해주는 독자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실감의 결합으로 결정된다(村上春樹, 2015/2016: 72-73). 따라서, 공신력 있는 주체나 기관의 의견이 문학 텍스트의 질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인지하고 독자 스스로 문학 텍스트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일부 트레바리 문학 독서모임에서는 4개월간 여정에서 읽어야 할 책을 추천과 투표로 선정한다. 대표적으로 “무경계”는 이름 그대로 경계가 없다는 뜻으로 읽어야 할 책이 정해져 있지 않다. 파트너 역할의 독자들은 무경계 ‘클럽’을 홍보할 때 읽어야 하는 도서가 아니라 추천하는 도서로 목록을 올린다. 이 도서 목록은 추후 모임에서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할 때 논의의 참조로만 활용된다. 또한, 문학 독서 클럽 중에서 ‘북씨’의 경우는 특정 주제를 설정하여 영화와 함께 읽을 수 있는 문학 텍스트를 선정한다. <그림 2>의 ‘북씨’에서 문학 텍스트를 선택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한다.

### 3번째 모임 키워드 : 위로와 낮은 사람

📖 안톤 체호프, 『바냐 아저씨』

🎬 하마구치 류스케, 「드라이브 마이 카」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의 원작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집 『여자 없는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냐 아저씨』를 페어링 한 이유는 영화 안에서 오가는 인물들의 감정, 고민, 갈등이 『바냐 아저씨』의 대사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네 인간 삶을 대변하는, 비극 같으면서도 희극 요소가 짙어 오랫동안 사랑받는 체호프의 희곡을 영화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함께 읽고, 보고, 나누어 봅시다!

### ✓ 4번째 모임의 책/영화는 멤버들과 함께 투표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3번의 모임을 통해 가까워진 우리, 서로에게 인생작을 추천해 줘요! 서로의 인생작을 통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모임이 끝나도 계속 이어지고 나누는 취향 메이트가 되어보아요!

〈그림 2〉 ‘북써-다이버’의 문학 텍스트 선정 내용(이윤서, 2023)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는 원작 소설이 따로 있으나 영화 안에서 오가는 인물들의 감정, 고민, 갈등이 〈바냐 아저씨〉에서 잘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작과 다른 소설을 선택하였다. 원작보다 〈바냐 아저씨〉가 ‘위로와 낮은 사람’의 주제를 정서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데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주제별 통합 독서<sup>15)</sup>의 형식으로 상호텍스트성에 근거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특정 주제에 따른 상호텍스트성이 작동하면서 새로운 문학 텍스트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북써-다이버’의 4번째 모임에서는 주제 없이 “서로의 인생책”을 추천하며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문학 텍스트에 대한 취향을

15) 상호텍스트성은 주제, 화제, 필자 등에 의해 형성되는데, 주제를 선정한 후 통합 독서를 하는 방식이 주제별 통합 독서이다(박정진, 2014: 211).



공유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알 수 있다.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는 기준을 한 편의 문학 텍스트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만 두지 않고,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개인의 문학적 선호도를 공유하려는 시도는 문학 텍스트를 선택하는 기준을 다양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온라인 공간의 문학적 소통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만나서 모임을 한 이후에도 오늘 읽은 문학과 관련된 다른 작품을 다양하게 공유해요. 본래 읽은 문학이 부부의 사랑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다들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여러 생각이 들었는지, 모임이 끝나고도 카카오톡에서 엄청 이야기를 더 했어요. 그러다가 이승우의 〈사랑의 생애〉, 알랭 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읽고 이야기하는 번개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R7-I〉

책을 읽고 감상을 말하면서 여러 책이나 영화 심지어 그림이나 노래까지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작가 이야기로도 이어져요. 같은 작가를 좋아해도 대표작들에 대한 평가는 갈리기도 해요. 또, 새로운 출판사, 책 전시회, 굿즈에 대한 정보까지도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작가나 출판사 신간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R8-I〉

위의 면담에서 문학 텍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이나 작가 정보, 전문 독자의 비평이나 감상 등을 소재로 한 논의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7의 면담에서는 독자 간에 상호텍스트성에 근거한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더 읽어야 할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여 소모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R8의 면담에서는 문학 텍스트와 연결되는 작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들의 대표 작품이라 할 만한 문학 텍스트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

표 작품의 평가에 대한 비평적 담론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기준을 다양화면서 재평가하기도 한다는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출판사”, “책 전시회”, “굿즈” 등의 소재까지 등장하며 문학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문화적 현상까지 소통한다.

이러한 소통 내용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독자와의 관계에서 취향공동체(taste communities)로 응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향공동체는 개인의 취미에서 벗어나 개인의 가치관이 결합한 취향을 형성하며 자발적 선택으로 맺어진 일시적인 공동체이다(구선아·장원호, 2020: 74). 취향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독자들은 관계 속에서 현재에 자신의 내면적 욕구에 집중하여 문학 텍스트의 선택 기준을 다변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 작가나 작품을 재평가하거나 새로운 작가와 문학 작품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 트레바리의 독서모임에서는 독자들의 사회적 연결감(social connectedness)이 강화되면서 읽고-쓰기 경험을 책으로 출판하는 사례도 나타난다(트레바리, 2022). 문학은 본디 누구나의 것이었으며 작가와 독자의 구별이 따로 있지 않았으나, 문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문학의 비민주화가 본격화되었다(윤영천 외, 2009: 107). 그러나 매체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업 도구를 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프로마추어(promateur) 작가”<sup>16)</sup>군이 다수 등장한다.

트레바리의 프로마추어 작가군은 개개인의 작가로 등장하지 않고 문학 텍스트를 함께 읽은 집단적 독자의 형태가 변모한 공동창작자의 형태로 등장하며 실제 출판 사례까지 나아간다는 점에서 기존에 온라인 공간에서 등장하는 프로마추어 작가군과 차별화된다. 독자에서 작가로 정체성이 전환되

---

16) 프로마추어(promateur) 작가는 등단이라는 제도권 바깥에서 작가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뜻하는 용어로 추천인이나 신인상 심사위원에 의해 작가라는 작위를 받는 등단제도와 달리 일상을 살아가는 개개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보고 독자가 인정(증)해주는 특성을 가진다(우신영, 2019: 44).

는 양상은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형성되는 독자 간의 협업이 시너지를 내어 실제적 역량이 동원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독자의 위치에서 생산자의 위치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은 전문적인 작가의 삶을 살지 않았던 일반 독자라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과 편견에 부딪힌다. 그럼에도 이 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공동 창작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며, 독자의 후원을 끌어내어 출판하게 할 수 있는 텀블벅(tumblbug)과 같은 플랫폼, 디지털 글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협업 도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독자는 기존의 문학장의 권위에 대응하며 문학 텍스트의 생산에 참여하는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IV.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 역할 실현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트레바리’에서 일어나는 성인독자의 문학적 소통 현상을 조명하여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문학 독자 역할을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횡단’,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문학적 소통의 장 기획’, ‘연대를 통한 문학적 권력에 대한 저항 실천’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문학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실공동체와 성인독자의 독서 공동체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학 교실에서는 문학 텍스트의 속성이 교육내용으로 명시화되며 공통의 교육 목표로 결속되는 공동체의 성격이 강조된다. 반면에 성인독자는 자발적 공동체로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문학 텍스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성격을 가진다. 이 차이를 고려했을 때,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성인독자가 왜 자발적으로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고 함께 읽으려고 하는지와 공통의 목표로 결속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되는 공동체의 작동 방식이다.

문학교육의 목표가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학 텍스트 읽기를 넘어 문학 텍스트를 생활화하는 평생 독자를 기르는 것이라면, 성인 독자가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형성하는 집단 지성으로서 독자 역할은 문학의 생활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더욱이 독자가 온라인 공간에서 수용과 생산의 역할을 교차하며 불특정 다수와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문학하기 현상을 창조해 나가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즉, 트레바리의 문학 독서모임에서 성인독자가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방식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학적 소통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문학적 소통을 연계하면서도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시사점을 통해 문학교육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성인독자가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 수행한 역할을 토대로 집단적 독자의 정체성이 문학교육의 존재 방식에 중요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학적 소통을 연계하며 독자 집단의 취향공동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트레바리의 문학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성인독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대면 모임의 시·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 장치를 통해 문학적 대화를 지속하였다. 문학적 대화가 지속되면서 서로 간의 차이가 빚어내는 역동적인 해석이나 감상은 문학 텍스트를 언어기호로 된 ‘살아있는 구조물’로서 인식하도록 하였다.

문학 교실에서는 전문독자로 분류되는 작가, 비평가, 교사의 해석이나 감상이 학습독자의 경험과 연계되면서 배움이 일어나는 측면이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문독자와 학습독자의 수직적 관계를 전제했을 때 드러나지 못한 학습독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복합성은 ‘대중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 다양한 해석이나 감상이 소통되면서 드러날 수 있다. 학습독자 간 문학적 소통 행위는 오프라인 공간인 교실에서의 소통으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과 연계되면서 시·공간적 제약에서 자

유롭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독자 간 풍부한 해석이나 감상이 공유될 수 있다. 따라서, 읽기 전·중·후 과정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여 교실에서의 문학적 대화와 연계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문학 텍스트를 선택하는 기준을 소통 내용으로 중요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 좋은 문학 텍스트는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문학장은 개인이나 집단이 취하게 되는 여러 입장이 권력 관계 속에서 갈등과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다(리영균, 2004: 177). 문학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문학 텍스트를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문제가 문학교육에서 중요해진다.

학습독자는 기존에 가치 있다고 여겨진 문학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벗어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며 문학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습독자가 읽고 싶은 여러 문학 텍스트를 검색하고 찾아보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정 기준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질문을 생성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적 대화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독자는 좋은 문학 텍스트를 읽는 독자에서 좋은 문학 텍스트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독자로서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주체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학습독자 집단의 취향공동체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

둘째, 문학적 소통의 장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주어야 한다. 트레바리의 문학 독서모임에서 ‘파트너’는 문학적 대화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독자이다. 불특정 다수 독자를 대상으로 문학 텍스트를 읽는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하는 원동력은 문학 텍스트를 함께 읽는 즐거움을 실천하고자 의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문학교육에서는 “문학 텍스트를 함께 읽는 즐거움을 실천하는 독자”를 주요한 독자상으로 설정하여 문학적 소통의 장이 열리기만을 기대하는 독자보다는 스스로 그 장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독자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학교육에서는 다양한 독자와 독서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학습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동일 학급 내에서 ‘조’를 번갈아 구성하는 방식에서 학년군 차원에서 동아리 형태로 독서모임 구성원을 마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 한 학급에 있는 학습독자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학년 혹은 학급 구성원의 경우 느슨한 연결고리를 가지게 된다. 이는 문학 텍스트가 주요한 매개가 되어 소통의 장을 기획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이 된다.

또한, 파트너 역할의 성인독자는 질문을 통해 문학 텍스트의 불확정적인 지점을 주목하며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소통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문학 텍스트를 읽고 질문을 생성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 질문은 문학 텍스트를 통해 개인의 내면과 사회적 문제까지 사유할 수 있는 층위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한 질문 내용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상호텍스트성을 전제로 한 읽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작동되는 상호텍스트성은 단일 텍스트 읽기에 따른 구심적 인식 수준에 그치지 않고 통합적 읽기에 의한 원심적 인식 수준으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문학 텍스트에서 명시적 혹은 암시적인 요소들을 다른 문학 장르 혹은 비문학 장르와 폭넓은 연결을 시도하면서 개인과 집단의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질문을 생성할 수 있다.

셋째, 문학 텍스트를 읽는 경험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콘텐츠 등을 도구로 활용해 창작과 출판의 경험을 구체화하는 활동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간 문학교육에서는 문학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연계 과정에서 원본이 되는 작품의 위상은 여전히 공고히 유지되면서 창작 활동은 다분히 부가적인 활동으로 간주되기 쉬웠다(박주형·진가연, 2022: 320). 그러나 다수의 독자가 작가로서 협력하게 되는 공동 창작은 독자들의 해석이나 감상이 공유되고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문맥 속에서 “신선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틀림없이 그 사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오리지널리티”를 체

협하는 협력의 과정으로서 창작 활동을 재편할 수 있다.<sup>17)</sup>

트레바리에서 성인독자는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쓰는 경험이 공동 창작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출판까지 시도하였다. 레비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협업적 글쓰기야말로 집단적 사유를 생산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집단 지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적 능력이나 협업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김지연·강진숙, 2015: 245). 공동 창작은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능력과 결부되면서 활동의 완결성을 더할 수 있다. 이는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 영역이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문학교육과 매체교육과의 접점을 다각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실현될 수 있다. 문학교육에서 매체교육과의 통합적 구도를 마련하면서 창작 활동은 원본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문학 텍스트로서의 조건을 실험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는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고 감상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문학적 소통의 장을 기획하고 더 나아가 생산자의 위치를 병용하면서 역할을 확장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그간 교사가 한 편의 문학 텍스트를 깊게 읽을 수 있는 전문독자의 위치에 치중해 있었다면 학습독자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즉, 교사는 온라인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며 문학적 소통의 장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공동 창작 과정에서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독자 모델이 되어야 한다.

---

17) 村上春樹(무라카미 하루키, 2015/2016)는 “오리지널리티”의 조건을 독자적인 스타일, 자발적·내재적인 자기 혁신력, 다음 세대의 풍부한 인용원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학습독자는 원래의 문학 텍스트를 풍부한 인용원으로 간주하면서 원본의 위상을 존중하되, 공동 창작을 통해 새로운 문학적 소재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며 독자적인 스타일로 문학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다.

## V. 맺음말

기관이나 한 개인이 온라인상에 공개한 것을 수용만 할 수 있던 웹 1.0과는 달리 웹 2.0은 ‘참여’의 가치를 내세워 정보의 제공과 확산, 재생산이 활발해지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는 생산자와 수용자 간 그리고 수용자들 간에 실시간 소통을 견인하고 문학 텍스트를 향유하는 방식의 집단적인 성격을 강화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학적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 역할을 조명하여 문학교육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레비의 집단 지성은 “어디에나 분포하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며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이다. 집단 지성은 대중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 인식론적 배경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이 줄어들면서 지식이나 정보의 공유가 활성화되는 소통 방식을 반영하여 형성된 개념이다. 집단 지성은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가치를 조정하면서 관습화된 가치를 전복시키고 저항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독자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독서모임 커뮤니티인 ‘트레바리’에 참여하는 성인 독자의 소통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 역할은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횡단’,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문학적 소통의 장기획’, ‘연대를 통한 문학적 권력에 대한 저항 실천’으로 나타났다.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연계하여 취미공동체로서 독자 집단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기획하는’ 역할이 강조될 수 있는 독자상을 정립하고 문학적 소통의 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주어야 한다. 또한, 문학 텍스트를 읽는 경험 이 다양한 온라인 공간 환경에서 창작과 출판의 경험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학교육의 방향은 뉴미디어 시대에 추구되어야 하는 문학 텍스트의 가치를 교육적으로 수용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 본 논문은 2023.04.30. 투고되었으며, 2023.05.18. 심사가 시작되어 2023.06.1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민규(2020), 「문학교육 연구에서 독자 반응 이론의 행방(行方)과 향방(向方) - 1985년 이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66, 33-72.
- 구선아·장원호(2020), 「느슨한 사회적 연결을 원하는 취향공동체 증가 현상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57, 65-89.
- 김검섭(2011), 「미디어의 이중성, 담론과 대화」, 『인문과학연구』 37, 173-202.
- 김경년(2021), 「거울뉴런(mirror neurons)의 이해 및 탐색: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관계 및 교육학적 의미」, 『교육학연구』 59(8), 171-201.
- 김윤재(2015), 「사이버 공간과 레비의 집단 지성에 대한 철학적 해명」, 『동서철학연구』 76, 301-323.
- 김지연·강진숙(2013), 「블로그와 트위터 이용자들의 소셜 미디어 출판에 대한 연구: 피에르 레비(Pierre Lévy)의 집단지성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39(2), 35-61.
- 김지연·강진숙(2015), 「SNS 독서 커뮤니티의 집단지성과 미메시스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9(4), 225-259.
- 김천혜(1998), 「수용미학의 흥성과 쇠퇴에 대한 고찰」, 『독일어문학』 8, 231-252.
- 라영균(2004), 「문학장과 문학성」, 『외국문학연구』 17, 175-187.
- 박정진(2014), 「주체별 통합 독서(신토피컬 리딩)의 의미와 독서교육적 맥락」, 『독서연구』 32, 191-212.
- 박주형·진가연(2022), 「능동적 협력자로서의 문학 독자 역할에 대한 고찰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의 문학 소통 양상을 중심으로 -」, 『우리말 글』 93, 293-324.
- 손정우·김혜리(2012), 「깨진 거울인가 깨지지 않은 거울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거울 뉴런 문제에 관한 고찰」,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4(3), 109-123.
- 양미경(2010), 「집단지성의 특성 및 기제와 교육적 시사점의 탐색」, 『열린교육연구』 18(4), 1-30.
- 양정실(2012), 「우리나라 문학교육 연구에서 독자반응 이론의 수용 현황과 전망」, 『문학교육학』 38, 99-123.
- 오연경(2016), 「능동적 독자에 대한 강조와 교과서 수록 현대시의 변화 양상 독자반응 이론의 수용 이후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4(2), 97-122.
- 요한(2023. 6. 22.), 양자택일: 야심과 양심, 트레바리, 검색일자 2023. 6. 25., 사이트 주소 <https://m.trevari.co.kr/bookreviews>.
- 우신영(2019), 「뉴미디어 시대, 문학, 놀이, 공동체」, 『독서연구』 53, 33-64.
- 윤영천·김진경·홍정선·정과리·김명인(2009), 『문학의 교육, 문학을 통한 교육』,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미은·김검섭(2022), 「독서문화현상과 문화권력」, 『마인드 교육』 1(1), 165-184.
- 이윤서(2023), 북씨 -다이브: 책과 영화를 함께 봐요!, 트레바리, 검색일자 2023. 5. 30., 사이트

- 트 주소 <https://trevari.co.kr/meetings/show?clubID=a5663fab-247b-49b6-9d4c-9379cc5cc00b&order=1>.
- 이지영(2021), 「‘집단 지성’과 그 저항적 역할을 통해 형성되는 팬덤 정체성: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3, 171-188.
- 이향근(2012), 「시적 감성의 교육 내용 설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향근(2013), 「시 텍스트 이해 학습에서 ‘저자에게 질문하기 방법(QtA)’의 적용」, 『새국어교육』 95, 221-247.
- 정진석(2014), 「소설 해석에서 독자 역할의 중층 구도와 소통 방식 연구」, 『문학교육학』 43, 385-416.
- 조화순·민병원·박희준·최항섭(2011), 『집단지성의 정치경제: 네트워크 사회를 움직이는 힘』, 파주: 한울.
- 천경록(2014), 「사회적 독서와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101, 7-35.
- 최항섭(2009), 「레비의 집단지성: 대중지성을 넘어 전문가지성의 가능성 모색」,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26(3), 287-322.
- 트레바리(2015. 9. 1.), 트레바리, 검색일자 2023. 5. 30., 사이트 주소 <https://m.trevari.co.kr>.
- 트레바리(2022. 8. 24.), 트레바리 3년이면 책을 쓴다, 트레바리, 2023. 5. 30., 사이트 주소 <https://trevar.ink/xHppU4>.
- 한창진(2009), 「지식 생산 방식에 따른 집단지성 구조 분석: 네이버 지식IN과 위키피디아를 중심으로」,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009(2), 1363-1373.
- 황주성·최서영(2010), 「집단지성의 유형에 따른 참여자 특성분석」,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27(4), 257-301.
-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7. 15.), MZ세대, 네이버 지식 백과, 검색일자 2023. 5. 30., 사이트 주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00733&cid=43667&categoryId=43667>.
- 村上春樹(무라카미 하루키)(2016),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양윤옥(역), 서울: 현대문학(원서출판 2015).
- Iser, W. (1993), 『독서행위』, 이유산(역), 서울: 신원문화사(원서출판 1984).
- Levy, P. (2002), 『집단지성-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권수경(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원서출판 1997).

##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 역할과 문학교육적 함의

김금내

본 연구에서는 문학적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집단으로서의 독자 역할을 조명하고 문학교육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피에르 레비의 집단 지성은 “어디에나 분포하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며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이다. 집단 지성의 관점에서 독서모임 커뮤니티인 ‘트레바리’에서 활동하는 성인 독자가 문학적으로 소통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 역할을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횡단’,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문학적 소통의 장 기획’, ‘연대를 통한 문학적 권력에 대한 저항 실천’으로 규명하였다.

문학교육에서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 학습독자를 길러내기 위해 세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문학적 소통을 연계하여 독자 집단의 취향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문학적 소통의 장을 기획하는 역할이 강조될 수 있는 독자상을 정립하고, 문학적 소통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 창작과 출판의 경험을 구체화해야 한다.

핵심어 문학 독자 역할, 집단 지성, 트레바리, 문학적 소통, 기획

## ABSTRACT

# The Role of the Reader as the Subject of Collective Intelligence Formation and its Literary Educational Implications

Kim Geumnae

We tried to shed light on the role of readers as a group in the reality of accelerating changes in the literary environment and explore literary educational implications. Pierre Levy's collective intelligence is "an intelligence that is distributed everywhere, constantly valued, adjusted in real-time, and reaches the actual mobilization of capabilities." From the collective intelligence perspective, the reader's role as the subject of collective intelligence was identified as "crossing online and offline spaces through literary texts," "planning literary communication for many readers," and "practicing resistance to literary power through solidarity."

Three suggestions were proposed to cultivate teaching readers as the subjects of collective intelligence formation in literary education.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der group as a community of taste should be strengthened by linking communication in online and offline spaces. Second, developing the qualities that plan and lead literary communication is necessary. Third, co-creation and publishing experience should be embodied by actively utilizing online platforms or content.

**KEYWORDS** Literary Reader Role, Collective Intelligence, Trevari, Literary Communication, Planning